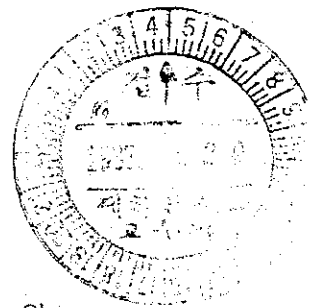


관 민 의 교 외 학 국 가

직 도 교 수 장 준 모



서 기 1 9 8 7 년 월 일

대 한 신 학 교

목 외 학 과

이 대 용

이 대 용 의 졸업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관수 인

대 한 신 학 회

서 기 1987년 정 일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칼빈의 정치사상의 배경	-----	4
제 1 절 역사적 배경	-----	4
제 2 절 사상적 배경	-----	6
제 3 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	-----	10
제 1 절 교회에 대한 칼빈의 견해	-----	10
1. 교회의 본질	-----	10
2. 교회의 권위	-----	13
제 2 절 국가에 대한 칼빈의 견해	-----	16
1. 국가의 본질	-----	16
2. 국가의 권위	-----	18
제 3 절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	-----	23
1. 교회와 국가의 개별성	-----	23
2. 교회와 국가의 유기성	-----	25
제 4 장 결론	-----	27
참 고 문 헌	-----	29

## 제 1 장 서론

교권과 국권의 관계는 교회와 국가가 공존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다. 실제로 국가는 현실상의 제반 자원을 소유하고 그 바탕으로 막강한 통치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교회로서는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감각을 지닌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자신의 신학사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역사적으로 볼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처럼 양자가 완전히 밀착된 채 교회가 정치권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현재와 같이 국가의 권력이 그 어느 시대에 있어서보다도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 교회가 사실상 국가의 간섭을 받는 시대도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가의 정권이 독재정권과 연결되어 종교적 자유나 인권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제3세계 영역에 있어서 교회는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정치적 전향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시기에 있어서 뛰어난 개혁가들 가운데 한 인물로써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날 기독교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장로파 교회의 창시자 이기도 하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실제적 권위가 몰락하고 세속적 국가권력이 점차 강대해지는 시대에 처하여, 교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리고 교권과 국권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는 오늘날 많은 장로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태대로 그의 사상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유파의 추종자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의 정치참여의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때에, 칼빈의 사상에 대한 해석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바는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칼빈의 정치사상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권과 국권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고 아울러 민주주의라고 하는 현재의 관점에 입각해서 그의 정치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정치참여의 문제로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칼빈은 신학자로서 종교개혁가로서 또는 정치가로서 많은 역사적, 사상적 업적을 남겼다. 실로 그의 저작은 방대하며, 종교개혁가로서의 그의 실제적 노력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정치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그의 저작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그의 정치사상을 평가하면서 그가 실제로 행한 개혁 운동과 그 이후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상기한 목적과 방법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2장에서

서는 칼빈의 정치사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 사상적 차원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교회, 국가,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본질과 권위 및 관계성을 연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중심한 칼빈의 정치사상을 평가하고 적실성을 찾기위한 연구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 제 2 장 칼빈 ( Calvin )의 정치사상의 배경

### 제 1 절 역사적 배경

칼빈이 활동했던 16세기의 유럽은 중세기 문명의 붕괴를 겪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절대군주체제가 확립되고 있었고, <sup>1)</sup> 경제적으로 상업 및 산업의 발달로 자본주의가 생성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 계급 및 계층의 재편성이 발생하였고, 문화적으로는 인간중심의 예술활동, 즉 르네상스 ( Renaissance ) 운동이 일어났으며, 종교적으로는 교황중심의 보편주의 교회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은 이러한 변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세계관을 정립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칼빈역시 신학자로서 이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형성하여야 했던 것이다.

정치면에서 보면 십자군 운동이 끝난 1270년경을 전후하여 카톨릭 교황은 세속군주에 대해 우월했던 전통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사회의 일부에서는 교회의 권위와 실천내용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봉건제후의 세력은 후퇴하고 군주에 의한 절대국가가 출현하였다. 유럽 도처에서 생겨난 새로운 군주국가는 중앙집권적 통치기구를 창설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구는 과거의 행정기구에 비해 더 효율적이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제 이 새로운 정치체제에 필요한 것은 그것에

---

1) L.C. Wanlass, Gettell's History of political thdught (new York: Appleton Century - Crofts, 1953) p.153.

정신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여 줄 수 있는 통치이데올로기였다. 당시로서 가장 유리한 것은 교회의 세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곧주는 새로운 지지자를 찾아야 했다. 2)

사회경계면에서 보면 도시의 인구가 더욱 더 증대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는 한편 활발한 화폐유통은 중세장원을 중심으로 한 농촌경제에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민의 사회적 세력이 점차로 커졌으며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비록 궁극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농민들의 반란은 고정적 사회신분을 동요시키고 있었다. 이제 중세적인 잔재를 넘어서 상업, 농업, 공업의 근대적인 경영형태가 명확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상인, 은행가, 산업가들은 자본주의적 수단을 완성시켜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사회경계면의 발전은 현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사회적, 경제적인 제변화는 봉건제도, Guild 및 교권을 쇠퇴시키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사회전반에 등장시키게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제도상의 과도적 변화에 직면하여 도리어 인간의 자의식은 강해지며 인간 능력과 개성발달에 대해 낙관하게 되었다. 학문과 사상은 보다 더 자유롭고 체계있게 탐구되고 거기에 따라 세계관도 달라지게 되었다. 중세 말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이러한 역사적 과도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그것은 문화적으로는 고전에의 복구를 뜻하였으나 동시에 정신적인 면에서 인간의 자아의식의 발견을 의미하였다. 자아의 발견은 전통적인 교회조직과 의식을 통한 신앙내용을 개인중심의 구제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즉 사람들은 이제 영혼을 구제하는 길은 각자 자기자

---

2) George H. Sabine, 정치사상사(1), 성유보.차남희 공역 (서울:한길사, 1983) p. 475.



신의 일이며 어떠한 기관과 형식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하였다. 3)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칼빈으로 하여금 신학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국가권력과 인간의 자유의식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계급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칼빈은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밝혀야 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교권과 국권의 관계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왜냐면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가운데 교회가 우월성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이용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교회와 국가가 점차 분리되어 가고 오히려 국가가 교회에 대해 주권적 입장에 서게 되었으므로, 교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현실적 권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교회의 권위도 주장하여야 했던 것이다. 4)

즉 칼빈은 교회와 국가와 국가의 개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양자의 유기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양자의 개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의 현실주의적 측면이라 볼 수 있고 양자의 유기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종교적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 것은 그의 이상주의적 측면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성은 교권과 국권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그의 정치사상의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제 2 절 사상적 배경

3) 차하순, 서양사총론(서울: 탐구당, 1979) p. 251.

4) 김남식 편저, 칼빈주의 연구(서울: 백학출판사, 1977) p. 19.

성경은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사고와 행위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자연과 역사를 통한 연구로 정치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칼빈은 성경을 완전을 추구하고 있다. 5)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신앙의 법칙에서 정치체계의 기초와 그 지배적인 원리를 발견한다. 성경은 결코 정치가 전제정치나 귀족정치, 혹은 민주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선언하지는 않는다. 6) 다만 성경은 영원한 원리로서 칼빈의 정치사상의 기본적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중심주의로 인하여 실추되어가는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매개를 통해서 되찾고자 하였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면서도 교회 자체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칼빈은 성경에서의 절대복종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신의 계시인 성경의 교리는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벌써 있었으며 --- 성경을 판단하는 권위가 교회에 속하고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카톨릭의 견해는 참으로 그릇된 것" 7) 이라고 하였다. 성경의 절대성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유기적 관계, 즉 국가의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

5) H.H. Meeter, 칼빈주의, 김진홍·박운선 공역 (부산:성문사, 1959) p. 99.

6)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F.L. Battles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 1967) IV, 20:8.

7) Ibid., I, 6:2.

그러나 칼빈의 정치사상 형성에 있어서 성경이 끼친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그의 정치사상의 유일한 근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칼빈은 성경 못지않게 고전적 사상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파리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많은 고전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가졌다. 특히 세네카의 "자비론 주석"은 키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그리고 플라톤의 "공화국"을 연구할 수 있는 자극이 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정치사상 속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접하게 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8)

이러한 기초외에 칼빈은 오를레앙 대학과 부르주 대학에서 법률교육을 받았다. 법률과정의 초점은 로마법과 키케로, 세네카, 율피안, 그리고 다른 법학자들의 이에 대한 주석들이었다. 여기서 칼빈은 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상세히 배웠을 뿐 아니라 안정된 정부의 기본적인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웠다. 또한 칼빈은 중세 법률학자들의 사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9) 칼빈은 그들 사상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바 없었지만 프랑스의 법률학계에서는 그들의 입헌적인,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사상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10) 이와같이 칼빈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상가들과 중세의 인본주의자들로부터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영향은 칼빈으로 하여금 국가의 세속적 권력에 대해 교회와는 별개의 영역

8) 신복은,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서울:총신대학, 1973.6월호)

p. 9 - 10

9)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고신대출판부, 1976) p. 53-61.

10) 신복은, *op. cit.*, p.10

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이 정부의 형태에 관해서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정치와 민족정치에 대한 그의 개인적 선호의 성향은 <sup>11)</sup> 고전사상으로부터의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칼빈의 정치사상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추상적 원리와 고전으로부터 나타나는 인본주의 실제적 지식이 종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교회와 국가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그리고 후자는 교회와 국가의 개별적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칼빈의 정치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써 칼빈의 정치사상이 개별성과 유기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타당성과 이유가 여기서 다시 발견되는 것이다.

---

11) Calvin, op. cit., Iv.20:8

### 제 3 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

#### 제 1 절 교회에 대한 칼빈의 견해

##### 1. 교회의 본질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였다.<sup>12)</sup> 전술한 바와 같이 칼빈은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교회의 권위만큼은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칼빈은 성경의 절대적 위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즉 교회나 국가가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함으로써 그 존립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3)</sup> 칼빈은 이와 같이 성경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구하고 교회에 대한 성경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가시적 기관인 교회를 내 세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세속적 권력기관인 국가와의 직접적 갈등을 줄일수 있었다. 즉 칼빈은 국가와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종교적 우월성을 암암리에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성경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교회의 경건한 의무이며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만으로써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 "가장 교묘한 신의 무시자들"<sup>14)</sup>인 것이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반대자의 그 어떠한 도전에도 단호하였다.<sup>15)</sup>

---

12)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3) p. 297.

13) H.H. Meeter, op. cit., p. 140-141.

14) Calvin, op. cit., I, 7:4.

15) 김남식 편역, op. cit., p. 21.

이렇듯 성경으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구했던 칼빈은 2개의 교회를 언급하고 양자의 결합형태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간주하였다. 2개의 교회란 "가시적 교회", 그리고 형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신비주의자들의 "불가시적 교회"이다. 칼빈은 교황과 그에 따르는 위계적 제도에 치중하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 반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입장을 취하는 신비주의자들의 입장에도 동조하지 않음으로써<sup>16)</sup> 현실적이고 중도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가시적 교회만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국가권력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불가시적 교회를 아울러 주장함으로써 암암리에 종교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칼빈이 우선 생각한 교회는 철저하게 구체적 형태를 가진 교회였다. 인간을 예수와의 교제에 이끄는 외적 수단인 만큼 가시적 교회가 예수의 복음의 성패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과 분리된 신비적인 교제는 무의미한 것이다. 가시적인 지상의 교회는 "거룩한 공회"로서의 교회이고,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며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인 동시에 신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이다. 이러한 가시적 교회는 신의 계시가 선포되고 청종되며, 예수가 정한 바에 따라 성례전이 집행되고,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다. <sup>17)</sup> 즉 최소한 교회로서 인정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신앙고백"과 "생활의 규범"과 "성례에 참여"가 요구된다.

16) 칼빈은 신비주의자들을 가리켜 "광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리버틴(Libertines)파 즉 도락자를 말하는데 칼빈이 환상적이고 광란한 증파 리버틴 당을 반박함.

Calvin, op. cit., I, 9:1.

17)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서울:신교출판사, 1965)  
p. 230.

칼빈의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공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거룩한 공회는 가시적 교회뿐 아니라 불가시적 교회도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다. 주 교회는 신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며, 따라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가시적이면서 불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이면서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칼빈의 인식은 모두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불가시적인 교회를 예수와의 영적 교제를 통한 교회라고 한다면 가시적인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한 현재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불가시적인 교회는 신만이 알고 있으며 예수와 영적으로 연결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한다. 한편 지상의 교회, 즉 가시적인 교회는 머리로서의 예수를 중심으로 다른 신자들과 서로 지체로서의 결합을 의미한것으로서 이것은 미래의 유업을 받을 소망속에서 살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의 품에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곧 선택받은 성도들의 교제이다. 이 교제는 실제적 조직으로서의 교제가 아니고 예수를 머리로 한 영적 결합체로서 한 성령에 의해 고무되고 한 신을 위해 봉사하는 "한 몸"인 것이다. 18)

비록 칼빈이 우선적으로 가시적 교회를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시적 교회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제한되어 있으며, 표준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의 원형이며 그것을 제약하는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비판하고 심판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언제나 불가시적 교회, 즉 신의 선택

---

18.) L.Berkht, Systematic Theology (London:the Banner of Truth truth, 1939)p.563.

에서 권리와 기초를 얻게 된다.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를 내적으로 한계지어주며 제한하고 판단하며 반성시키는 것이다. 19)

결국 칼빈에게 있어서의 이상적인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완전한 결합이다. 즉 이상적인 교회는 결코 타락되고 불안정한 가시적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며, 또한 가시적 교회를 구원의 완전한 기관인 것 같이 가르치며 사도의 계승권으로 지탱하여 가고 복음의 순수성과 예수의 최후적 권위와 지배를 문제삼지 않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도 아닌 것이다. 20)

그리하여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 성경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아울러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교묘한 결합을 도모하였는데, 이것은 성장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교회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종교적 소망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 2. 교회의 권위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이 성경으로부터 유래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권위 역시 성경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예수의 말씀을 모든 성경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교황과 그에 따른 계급적 제도의 절대적 우월권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 대한 칼빈의 반발로부터 나온 것이 명백하다.

칼빈은 우선 교회의 권위가 교황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으

---

19) 전경연, op. cit., pp.231-233.

20) Ibid., p.234.



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 신자들의 개인적 행동과 제  
 반 사건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즉 교회는 이  
 절대적인 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제재하며 세상의 교만을  
 복종하게 하고 신의 위엄에 부족하게 하며 그의 힘을 얻어서 귀천을 막론하  
 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며 --- 온순한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방탕하고 완  
 고한자들을 견책하고 비판하고 억압도 하며 구속도 하고 석방도 하는 것이  
 다. 21)

입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교회의 법은 신에 대한 예배를 요구함과 동  
 시에 영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은 모든것에 대한 자유를 양심에 허  
 락하여 주었고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없다. 양심이란 신의 판단을 이해  
 할때 자신들의 죄를 감추지 않고 재판정에 선 죄수와 같은 입장에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과 같은 것이며, 이것은 인간에 속한 것  
 이 아니라 신에 속한 것이다. 22) 칼빈이 이렇듯 양심의 법을 내세우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의 대한 반발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  
 적 국가권력이 교회의 권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했다. 칼빈  
 이 생각한 인간의 법은 행정가가 제정하였든 교회가 속박 하였든 양심을  
 속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23) 즉 인간의 바른 행위란 성경에 계시된  
 신의 뜻을 존행하는 것이요, 인간은 오직 그에 복종할 뿐이다. 만일 여기  
 에 어떤 종교적 의무아래 양심을 속박시키려는 인간의 인위적인 법이 가해  
 진다면 이것은 커다란 죄악이 된다. 24)

21) Calvin, op. cit., IV,8:9.

22) Ibid., IV, 10:3.

23) Ibid., IV, 10:5.

24) Ibid., IV, 10:16.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칼빈은 루터의 신비주의적 경향이나 재침례파의 무정부주의적 경향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양심을 주장하는 자들이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전통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또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칼빈은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전 14:40)는 말을 인용한다. 그러나 한편 질서를 위해서 일정한 규칙이 제정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러한 규칙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양심에 대하여 종교적 의무를 강요할 수 있다거나,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것이거나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울러 강조한다.<sup>25)</sup>

즉 칼빈이 의도하는 바는 인간이 '색욕적인 생각으로' 제정한 법은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되지만 교회의 질서와 유대를 위해 적당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신자들의 예배 생활에 질서를 유지하며 예배의 혼란을 막기 위한 미신을 없애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지나친 간섭주의를 배제하면서 아울러 재침례파의 지나친 고립주의도 반대하는 중도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데 여기서 교회와 국가가 제휴할 수 있는 기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또한 영적 재판권을 말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처벌처럼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로 하여금 징벌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표명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5) Ibid., IV, 10:27.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행정과 규율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더욱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판은 정부에게 속한 권한을 교회가 소유한다거나 하는 점을 완전히 배제한다. 다만 정부가 형벌로서 모든 과오에서 교회를 깨끗히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는 자신의 입장에서 과오를 방지함으로써 정부의 힘을 덜어 준다는 것인데 26) 이것은 양자가 각각 맡은 일에서 상호협조의 입장에서 있으며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27)

결국 교회의 권위는 국가권력의 고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칼빈은 양심의 자유와 영적 재판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권위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법률과 형벌을 아울러 강조함으로써 교권과 국권의 형평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칼빈의 정치사상이 지니고 있는 개별성과 유기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제 2 절 국가에 대한 칼빈의 견해

### 1. 국가의 본질

칼빈은 우선 국가의 타당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재침례파의 무정부주의적 주장에 반대하고, 또한 교회의 가치를 무시한 채 국가의 강압적 권력만을 주장하는 마키아벨리의 극단적 현실주의 논의에 반대하면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가 어떠한 상태로 있거나, 또는 어떠한 국가의 법률 하에서 존재하거나에 상관이 없이 함께 도우며 살아간다고 한다. 즉 신의 영적 질서

26) Ibid., IV, 11:3.

27) Ibid., IV, 12:1.

와 군주의 세속적 질서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에 속하므로 영적인 자유가 정치적인 예속상태와도 잘 공존할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28)

국가에 대한 칼빈의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강대해지는 국가와 군주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칼빈은 국가의 현실적 위치를 너무나 인정하는 나머지 교회의 권위를 국가에 예속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그는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 관할 영역이 달라 공존이 가능할지라도 양자는 모두 신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며 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29) 국가가 교회와 분리된 채 존재할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신에 대한 외면적인 예배를 보호 육성하고 경건의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입장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을 인류사회에 적응시키고 우리의 생활양식을 대중사회의 정의에 맞추어 정돈하며, 우리를 서로 화해시켜서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 30)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국가의 주요한 정치적 기능은 기독교인 가운데 종교의 공적인 형태가 유지되고 일반대중들 가운데에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칼빈에 의하면 국가의 존재 타당성은 신의 뜻을 교회의 관할 영역 이외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발견되며, 이 논리에 따르면 당시의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가는 그 권위를 일반 대중으로부터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는 왕권신수설의 근거가

---

28) Ibid., IV, 20:1.

29) H.H. Meeter, op. cit., pp.140-141.

30) Calvin, op, cit., IV, 20:2.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1) 이러한 논지는 정치권력에 대해 개인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정도 인정하는가에 따라 절대군주제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로서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반군주제의 이데올로기로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32) 칼빈은 국가의 세속적 권력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교회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위를 신으로부터 도출하였는데, 이 점은 국가와 개인간의 지배, 복종관계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국권에 관해 살펴봄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 못지 않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2. 국가의 권위

칼빈은 국가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유래한 것과 같이 정부도 신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므로 지극히 거룩하고 정당하며 모든 피지배계층으로부터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33) 물론 정부는 신의 뜻을 좇아 정치를 수행하는 한에 있어서 개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 직분에 대한 치욕은 신의 불명예와 결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부를 부인하고 경시하는 것은 곧 신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게 된다. 34)

칼빈은 다양한 정부의 형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귀족정치와 민주정치가 적당한 형태로 혼합되어 있는 정부형태를 선

31) Leo Strauss, op. cit., p.310.

32) George H. Sabine, op. cit., 478.

33) Calvin, op. cit., IV, 20:4.

34) Ibid., IV, 20:7.

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35) 정부는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이 될지라도 정부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권위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6) 즉 칼빈은 자유가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절되고 그것이 그것이 지속되도록 옳게 제도화된 일종의 귀족정치를 옹호하면서도 신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정부를 부여받은 자들이 귀족정치나 민주정치의 정부형태를 초래하기위해 정체의 변혁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헛될 뿐 아니라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한 정부에 대해 일반 대중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칼빈의 정치사상이 지니는 반민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로 칼빈은 신의 뜻을 수행한다는 단 하나의 근거로 정부에 대해 막대한 정치적 권력을 위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배려가 덕을 위하여 그에 합당한 영예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는 마음속에서 식어버리며, 또 악인들의 욕정은 존엄과 형벌의 경고에 의하지 않는 한 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권력에 의한 상벌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37) 즉 정부는 무력행사는 경건과 양립할 수 있다. 정부가 사형을 집행할지라도 이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이므로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법은 결코 정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정부의 위치를 거의 절대시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전쟁과 과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정부는 단

35) Leo Strauss, op. cit., p.312.

36) Calvin, op. cit., IV, 20:8.

37) Calvin, op. cit., IV, 20:9.

지 개인이 행하는 악을 재판의 형에 의하여 억제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적의를 품고 침략하는 자가 있을 때 자신의 영토를 적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서도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직무상의 공적인 필요를 위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비용이 일반대중의 생활정도를 넘는다 할지라도 이는 쉽게 비난 받을 수 없다. 38)

칼빈은 정부와 법률의 관계에 대해 "법률이란 침묵의 정부이며 살아있는 법률" 39)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법률은 도덕적, 의식적, 재판적 법률의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도덕적 법률은 순수한 신앙과 경건 그리고 신을 높이며, 인간을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영원불변한 보편적 법률체계이지만, 의식적 재판적 법률은 각 민족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는 법률이다. 법률체정의 근거는 "공평"이라는 원리에 의하고 있는데 이 공평의 원리는 도덕적 법률속에 있다. 그리하여 도덕적 법률에 내재하는 공평의 원리가 무시되지 않는 한에서 법률의 제정은 다양할 수 있다. 40) 즉 정부는 공평이라는 원리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 이 법률은 개인들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도덕률이라는 종교적 법률체계로서 개별적, 세속적 법률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아울러 제시함으로써, 유기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에 의하면 국가는 강제적인 권력과 법을 수단으로 하여 악인의 파괴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외부적 의를 실천하고 문화적 발전을 조장하며 교회

38) Calvin, op. cit., IV, 20:14.

39) Ibid., IV, 20:14.

40) Ibid., IV, 20:16.

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신이 요구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공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일국의 법률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며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그 개인의 생활을 다스리는 법률이요,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법률은 반드시 신이 요구하는 사랑의 영속적인 규범에 맞도록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의 의지를 실현한다는 전제하에 신으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을 무력으로써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인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 것이며 정부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 어느정도 저항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여부가 칼빈의 정치사상을 절대군주옹호의 논리나 또 국가 민주주의의 논리로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칼빈은 정부의 통치자는 개인과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은 범용한 인간인 반면, 통치자는 신에 의해 선택받은 특별한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중요한 임무는 통치자들을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것이다.<sup>41)</sup> 이러한 존경은 통치자의 무력이 두렵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진정으로 그들을 신을 대하듯 존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경은 복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치자들의 포고의 명령에 따른다든가, 세금을 낸다든가, 공동방위에 관한 공적인 직책과 부담을 담당한다든가, 혹은 그 밖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진심으로 복종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통치

---

41) Calvin, op, cit., IV, 20:22.



자들의 변명을 신에게 기원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질서 가운데 바로 잡아야 할일이 있을지라도 개인들 자신이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이 일은 통치자들에게 그냥 맡겨 놓으면 되는 것이다. 42)

만일 국가의 통치가 사악하고 부당하다 할 지라도 개인은 그들에게 대항 해서는 안된다. 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하는 자는 신의 은혜에 대한 예증이며 거울이다.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무절제한 통치자 역시 신에 의하여 그 개인의 불의를 벌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이다. 따라서 모든 통치자들은 똑같이 정당한 권력을 받고 거룩한 위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즉 가장 천박한 아무런 존경할 바 없는 인간도 공적인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신이 그 말씀으로 자신의 정의와 심판이 사자에게 준 찬란하고 거룩한 권력을 갖게 된다. 43) 가장 악질적인 폭군도 신이 합당하게 생각한 지위에 오르게 하였음을 의심해서는 안된다. 통치자들의 방증한 욕망이 비정상적으로 돌변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는 일이 개인들의 임무는 아니다. 개인들은 오직 그들의 명령을 받들 뿐이다. 그런데 칼빈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정체가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불복종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무조건한 어떠한 지배에 대한 교정이 신의 보복이라 할지라도 만일 신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통치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권위에 불복할 수 있다. 44)

칼빈이 마지막으로 개인들에게 항거와 불복종의 권리를 주고 있는듯 하지만 이전에 그가 계속 강조했던 국가의 절대적 권위를 상쇄시킬수 있을

---

42) Ibid., IV, 20:23.

43) Ibid., IV, 20:25.

44) Sabine, op. cit., p. 438.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그는 항거와 불복종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별성과 유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에 대해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아울러 그러한 권위가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 즉 일반대중으로부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정치사상이 반민주적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를 다소 남겨놓고 말았다.

### 제 3 절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

#### 1. 교회와 국가의 개별성

교회의 임무는 영혼구원사업에 봉사하는데 있으며 국가의 임무는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함과 동시에 올바른 교리와 예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처벌하는데 있다. 즉 두 기관은 신으로부터 각각 다른 소명을 받고 있다. 게다가 두 기관은 신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 국가의 정치체계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체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두 기관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교회의 사법권이 오로지 영적체계의 보존을 위하여 준비된 기관인데 비하여 국가의 그것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준비된 기관이기 때문이다.<sup>45)</sup> 요컨대 인간은 지상과 천국에, 그리고 잠정적

---

45) Calvin, op. cit., IV, 11:11.

세계와 영원한 세계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세속적 법과 영원  
법면의 복음에 동시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의 존재임과 동시에 신  
님의 존재이다. 그는 예수의 영원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면서  
또한 세속적 지배자 및 법률의 잠정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그는 세속  
적 세계에서는 이성, 전통, 그리고 과거의 위대한 사상들에 의해 인도되며,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의해 인도된다. 46)

교회가 소유하고 행사하는 사법권은 철두철미하게 양심에 관계되는 것  
이고, 죄인이 영혼을 구하기 위한 복음의 선포이다. 국가법에 의한 최고  
형은 출교이다. 이 출교는 법을 어긴 자에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킴  
으로써 그가 내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서 다시 받아들인다는 복음적 행위이다. 47) 국가의 사법권과 교회의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 국가의 법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그의 양심이나 의사  
에 관계없이 강제로 구속하고 옥에 가두고 벌을 주는 것으로 그 집행은 완료  
한다. 교회의 법은 이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아무리 국가의 법  
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된다 하더라도 법을위반한 당사자가 양심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가 비록  
용서받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48)

---

46) Leo Strauss, op. cit., p. 299.

47) Calvin, op. cit., IV, 11:3.

48) Ibid.

기독교인은 현세에서 이중적인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교회의 구  
성원으로서 영적인 사법권에 복종해야 함과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일한 죄가 교회의 법과 국가의 법에  
모두 저촉되는 것이라면 양자 모두에 의해 이중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죄인은 국가에 의한 강제형을 당함과 동시에 양심적인 회개를 통하  
여 두가지 법에 모두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 49)

결국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개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세속적 국가권력에  
대해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여 주었는데, 이것은 국가의 권력이 점차  
강대하여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칼빈의 형식주의적 측면이라 볼 수 있  
다.

## 2. 교회와 국가의 유기성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유기적  
이고, 유기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이다. 양자는 신으로부터 권위를 부여  
받고 신의 목적에 봉사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관할 영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자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영적 자유와 정치적 노예는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적 영  
역에서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로의 유기적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아  
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궁극적으로 신의 의지의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

49) Leo Strauss, op. cit., p. 306.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적 자유와 정치적 노예가 양립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어느 한쪽의 성립이 다른 한쪽의 성립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다시 한번 명확히 성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칼빈은 신본주의의 입장에서 신의 권위를 절대시 하였고 모든 인간의 권위가 신과의 올바른 관계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백히 하였다. 즉 칼빈은 루터가 생각한 것처럼 국가를 지나치게 세속적인 기관으로 보지 않았고,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교회와 국가의 이원론적 이론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교회와 국가가 모두 신의 절대적 권위아래 있으며 교회는 특별은총의 영역에 속하고 국가는 일반은총의 영역에 속한다. 즉 교회는 인간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며 국가는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신의 형상인 인간의 문화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적인 선을 추구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이다. 특별은총이 전제되지 않을때 일반은총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구원사업의 완수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반은총이 없이는 특별은총이 성취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류의 생육, 번식과 문화의 발달없이 인간구원의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그 차이와 일치를 통해 명백히 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원만한 관계를 확립하려 하였다. 50)

---

50) 김성린, "칼빈에 있어서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 고신대학보 (부산: 고신대학 출판부, 1975) p. 10-13.

## 제 4 장 결 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칼빈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로서 나타나고 있는것은 모든 신학적 정치사상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여러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것은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권력기구이므로 교회 역시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개별적인 성격과 아울러 유기적인 성격이 공존하는 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곧 현실주의적인 성격과 이상주의적인 성격의 공존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영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노예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교회와 국가의 개별성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강대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절대국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국가는 모두 신의 뜻에 봉사하는 기관임을 강조하여 양자의 유기적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에 대해 교회의 종교적 요구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칼빈으로 하여금 로마 카톨릭의 세속적 입장이나 루터의 신비주의적 경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중세가 몰락하고 근대가 시작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등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변동을 겪고 있었던 16세기에, 특히 로마 카톨릭의 절대적 권위가 쇠퇴하고 절대군주의 권력이 증대하던 시대에 신학자 종교개혁가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칼빈이 제시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는 현실적인 국가의 독자적 권력을 인정함으로써 교회와 국

가의 개별성을, 또한 국가의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양자의 유기성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한편으로 그의 정치사상을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정치사상은 오늘날과 같이 일반대중의 세력이 크게 부상하고 진보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는 그 적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상은 한 시대를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한 시대의 반영이기도 하다. 칼빈의 정치사상이 일반대중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던 것은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의 영향이기도 했다. 따라서 칼빈의 견해는 현재적 입장과 관점에서, 즉 대중적, 진보적, 민주적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만 그 적실성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51)

한편 칼빈의 최고도 사상이 Max Weber 가 주장하듯이 근대자본주의 발달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실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칼빈의 정치 사상이 자본주의적 민주국가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밝히는 보다 폭넓고 깊은 연구가 요망되며, 한국적 정치상황과 현실적 구조속에서 적용되어 적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

51)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1905) Tr. by t. Parsons, London:Allen & Unwin, 1976 (1st edn, 1930)

참 고 문 헌

\* 국내서

- 김소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0
- 김남식, 편저, 칼빈주의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7.
- 백상건, 정치사상사. 서울: 일호각, 1981.
-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고신대출판부, 1976.
- 이종린, 정치사상사. 서울: 전연사, 1965.
- 이종성, 전통과혁신. 서울: 세종문화사, 1973.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68.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서울: 신교출판사, 1965.
- 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 박영사, 1969.
- 차학순, 서양사총론. 서울: 탐구당, 1979.
- 황성수, 교회와 국가.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7.



\* 국외서

- Allen, D. Clark, History of Korean Church.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61.
- Allen, J.W.,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the 16th Century, N.Y.: Barnes & Noble, 1960
-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Hondon: The Banner of Trust, 1939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L. Battles, Philadelphic: Westminster Press, 1967.
- Calvin, J., 기독교강요. 김문계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0.
- Dakin, A. 칼빈주의. 이병섭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6.
- Max Weben,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05) tr, by T. Parsons, hondon: Allen & Unwin, 1967.
- Meeter, H, Henry, 칼빈주의. 김진홍, 박은선 공역, 부산: 성문사, 1959.
- Sabine, George H., 정치사상사. 성유보, 차남희 공역, 서울: 한길사, 1983.
- Strauss, heo, and, Cropsey, Joseph.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hicapo: 1973

\* 간행물

김성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신학보, 제6권, 5-35  
(1975).

맹용길, "교회와 국가", 오늘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 서울: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76)

"교회의 본질과 사명", 기독교사상. 제20권 (1976, 7).

"하나님의 명령", 신학사상, 제15집 (1976.12)

"현대사회와 교회", 기독교사상, 제20권, 제220호. (1976.10)

선우학원,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기독교사상. (1967.11).

신복은.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서울:총신대학. (1973.6).